

KBS 아침뉴스타임 가짜꿀제조관련 보도

- 적발 현장, 제조과정, 천연꿀과의 구분법 소개
- 소비자 외 양봉농가도 피해자임을 강조
- 양봉협, 협회검사 신뢰도 확보 및 검사기술 개발에 앞장

잇을만하면 터지는 가짜꿀 제조 및 유통 사건으로 소비자와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BS 2TV 아침프로그램인 아침뉴스타임은 지난 12월 2일(수) 오전 8시부터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가짜꿀 제조 현장과 가짜꿀 제조법 등을 보도하고, 소비자들이 천연꿀과 가짜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방송은 또 가짜꿀 제조업자로 인한 피해가 양봉농가와 유통업체 등에도 미치고 있는 현황을 보도하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벌꿀이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가짜꿀 구분법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양봉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벌꿀 검사 중 탄소동위원소비검사가 유일하다고 소개하고, 천연꿀, 사양꿀, 가짜꿀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협회는 이번 가짜꿀 적발로 벌꿀 소비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접촉하여, '가짜꿀을 제조한 양봉업자'를 '가짜꿀 제조업자'로 정정

요구하고 가짜꿀로 인해 선량한 양봉농가들도 피해를 보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확보하는 한편, 벌꿀 순도검사법 개발에 협회가 적극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방송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벌꿀과 관련한 문의를 해옴에 따라 협회에서 실시하는 벌꿀검사의 신뢰성을 홍보하고, 현재 정상적인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양봉**

